

“근로청소년 나이 설정 신중히 검토해야”

제주도의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개정 추진 어제 관련 정책토론회 열고 개선점 등 의견 제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연소자 증명서의 개선 방안과 근로청소년의 나이 설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보건복지안 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7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미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제주도 아동보육청소년과 정순 과장, 제주도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김수정 팀장, 제주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현민철 정책연구팀장, 제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김은영 소장, 노무법인 서강 양윤전 노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개정은 근로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근로보호 및 산재보험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개정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해 7월 배달직종 근로청소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작으로 같은해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간담회 등을 실시했고, 올해 1월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조례개정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청소년을 기존 9세 이상 24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또 도지사가 연소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청소년이 노동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5년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

함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연소자 증명서 개선 방안과 나이 설정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은영 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 추진과정에서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연소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서 19세 미만으로 (근로청소년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제의했다”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는 3년에 한번씩 했으면 좋겠지만, 5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현민철 정책연구팀장은 “연소자 증명서는 사실 보호자, 후견인이 있더라도 가정에서 학생들이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

문에 몰래하는 부분도 있는데 연소자 증명서는 후견인 또는 학교장이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다. 사업장에라도 증명서를 비치하는 것이 연소자인 근로청소년이 일정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순 과장은 “개정 조례안을 보면 근로청소년을 19세 미만으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청소년 범위를 적게 하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청소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24세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달말 예정된 제413회 임시회에서 근로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서귀포시 마늘기계작업 대행사업 첫 시행

2억7000만원 투입 대정·안덕 소재 농지 50ha 대상

서귀포시가 농촌 초고령사회 진입, 생산비 상승, 파종·수확철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마늘 재배와 관련, 올해 처음으로 마늘 기계작업 대행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2억7000만원(자부담 40% 포함, 이하 생략)을 투입, 재배면적 50ha를 목표로 농가당 최대 1ha 면적에 작업 대행비 5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다만 지원 대상지역은 대정읍과 안덕면 소재 농지만 가능하다.

시는 최근 마늘 재배에 대한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여성 농가의 경우는 직접 기계 조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마늘 파종 및 수확 등을 전문 작업단이 기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파종시 대행비용

은 멀칭 포함 900원(이하 3.3㎡당), 미포함 800원이다. 수확시에는 줄기 절단을 포함해 900원이다. 비닐 걷기와 포장작업(땅)은 농가가 직접해야 한다.

시는 8일부터 2주간 대정읍·안덕면 마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마늘 재배 기계화 지원사업과 마늘 포장 제작비 지원사업을 벌인다. 기계화 지원사업에 5억8300만원을 투자해 마늘 생산 전과정에 필요한 생산자단체에 장비와 시설을 지원한다. 또 3억3300만원을 들여 10kg 박스 장당 2000원 범위 내에서 포장 박스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백금기기자 haru@ihalla.com



7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상국기자

3월부터 ‘우리마을 돌봄센터’ 사업 추진

제주시 한경면에 시범 운영

오는 3월부터 제주도 한경면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긴급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우리마을돌봄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제주도와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별 돌봄 서비스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마을중심 돌봄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제주도 한경면에서 ‘우리마을돌봄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면서 안전한 일상을 보내도록 마을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리마을돌봄센터는 제주도 서부권역(한림읍, 한경면)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주간보호와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돌봄서비스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한경면 인근에 조성되는 우리마을돌봄센터는 한경면 저지리마을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제주도가 발공사에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시범 사업을 운영하며, 제주도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민·관 협업을 조성·운영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국제교류 위한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도, 올해 상반기 제주 국제교류 청년 프렌즈 시범운영 이달 3일 첫 활동... 미국 대학생과 온라인 미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학생들의 국제교류 감각과 글로벌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도의 국제교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일명 ‘제주 국제교류 청년 프렌즈’는 올해 상반기에 소수의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 뒤 하반기에 정식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과거 국가와 정부에 한정되던 외교활동 주체가 이제는 지역과 그룹, 개인으로 확대되고 민간영역의 공공외교 활동이 주목을 받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제주형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제주 국제교류 청년 프렌즈는 올해 첫 활동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대학교(이하 UCSD)의 학생들과 지난 3일 온라인 미팅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미국 UCSD의 한국문화 동아리 ‘만남’에서 제주의 학생들과 교류 의향을 표명해 이번 첫 미팅이 성사됐으며, 이날 온라인 회의에서는 서로의 그룹을 소개하고 향후 활동을 논의했다.

UCSD 학생들은 “앞으로 제주와의 교류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서귀포시 예방·구제약품 지원

축산농가 828호 대상 20종

서귀포시는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발생과 기생충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예방으로 축산농가 828호에 예방·구제약품 20종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예산 9억4600만원(국비 3억3500만원, 지방비 4억2000만원, 자부담 1억9100만원)을 투입한다.

시는 소설사병, 돼지유행성심장병, 말비강폐렴, 광견병, 닭뉴캐슬병 등 15종(소 9, 돼지 3, 말 1, 개 1, 닭 1)·173만4000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약품을 공수의사,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배부한다.

백금기기자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정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그랜드보청기

계묘년(癸卯年) 설날 고객사은행사!!

① 20만원 상당 산생배양근 ② 15만원 상당 UV전자습기제거제
※1번 소진시 2번 사은품 제공됩니다.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2021 H1 H1BA 히트브랜드 대상 1위

충전형 귀속형 보청기 / 충전형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방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리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검구가 서광로 225 2층

심의회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을소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신내수영장

대표 임정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